

'붓길' 따라 꽃피는 정겨운 이웃마을 이야기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이호선 쓰고 그림
학교재 펴냄 | 1만5800원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반 고흐의 말이다. 서양화가의 이 철학이 동양화가 이호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화백은 말로 답하지 않는다. 산천을 두루 쏘다니며 그림이 될 만한 자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붓을 놀린다. 눈에 보이는 풍경만 담는 게 아니다. 풍경의 이면과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는다. 자연 뿐이라? 사람을 그림 때도 현재의 보이는 모습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그려낸다.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산천을 떠도는 이 화백의 붓질은 자연과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그의 붓길은 자연을 향해 떠나고 사람을 만나 정겨운 꽃으로 피어난다.

이 화백은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한 권으로 고흐의 철학을 말한다. 우리나라 마을 서른 곳의 풍경과 삶과 애환 그리고 기쁨과 희망 이야기가 330컷의 그림과 함께 담겼다.

이 화백은 마을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 마을에서 잠을 자고 밥을 얻어(?) 먹고 마을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눈다. 대체로 보낸 자식 이야기와 농사 이야기, 마을의 역사와 산과 들에 피어난 풀꽃들의 이야기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마을을 통째로 이해하기 위한 프로정신 때문만은 아니다. 가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마을과 이웃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바로 그 그리움이 마을을 찾아 떠나게 하고 화집을 꺼내놓고 언 손을 호호 불며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이다.

책의 제목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리움, 이웃, 마을. 이 화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 단어로써 한 권의 책을 다 썼고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 단어로써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서른 개의 마을에 스며드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읽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움과 이웃과 마을”을 키워드로 하는 이 화백의 글과 그림을 읽은 독자는 하나의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상생(相生).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는 상생의 이야기다. 이 화백은 전통 가치관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마을에 펼쳐진 고단한 삶이 자연과 희망을 만나 어우러지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화집과 원고지에 담았다. 그리하여 현실과 꿈, 자연과 개발논리, 지고한 가르침과 현실적 욕망, 돈과 체면, 도시와 농촌 등 모든 길항을 상생의 마을로 불러 모은다. 상생의 마을에서 만난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정이야말로 “극락”이 아닌가?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에는 이 화백이 승용차도 없이 5년간 쏘다니며 갈무리한 서른 개 마을의 이야기가 주제별로 다섯 묶음으로 나눠 실렸다. 화가 특유의 세심함과 은화함이 물씬 풍기는 글맛은 금방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을 풍경과 사람들의 그림은 볼수록 더욱더 마음에 든다. 마을 구석구석을 뒤진 정성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한가위가 다가간다. 이호선 화백과 함께 가슴 어는 구석에 묻혀 있는 그리운 마을을 찾아 떠나보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유불선(儒佛仙)의 틀을 깬 전통 종교사에 대한 고찰



최준식의 한국 종교사 바로보기
최준식 지음
한울아카데미 펴냄 | 1만8000원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가 지은 책으로 ‘유불선(儒佛仙)의 틀을 깨라’는 부제가 붙었다. 저자는 “한국의 종교 전통은 유불선에 있다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나 한국 종교사에서 도교(선도)는 교단, 조직, 사원이 존재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도교를 한국의 종교전통으로 포함시켜온 것은 중국적 세계관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시각에서 저자는 ‘유불선’의 ‘선’을 ‘무(巫)’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신으로 치부돼온 무교(巫敎)야말로 한국 전통의 종교이며,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주요 종교로 올려놓은 신도(神道)와 비교할 때 종교적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유불선’이 종교 전통이 된 것은 중국의 종교 전통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썼기 때문”이라며 “특히 19세기 말 등장한 신민족 종교는 ‘무유불도(巫儒佛道)’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물로서 이 시기를 ‘한국의 종교 개혁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와 기독교의 유입이래든지 유교의 국교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한국의 종교사가 변천해온 과정, 통일신라를 전후한 불교의 융성과 한말 동학을 위시한 신종교의 태동, 외래 종교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사례 등을 고찰한 글이 실렸다.

김주일 기자

참법수행을 위한 회염예찬문 축약본



대예참문
해월 편역
정우서적 펴냄 | 2000원

삼십여 조문의 길지 않은 문장 안에 불법승 삼보의 총체적인 모습이 들어 있는 <대예참문>. <대예참문>은 <회염예찬문>의 구성요건 가운데 지나치게 번다한 부분을 줄이고 축약하여 중요한 요점을 모아 놓아 참법수행을 하도록 한 것. <대예참문> 번역본은 뒤에 풀이를 실고 하단에 단어의 사전적인 풀이를 위해 흥법원간 불교학 대사전 페이지를 표시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또 내용중 풀이하기 불분명한 것은 아래에 다른 풀이를 실어 놓았다. 역자인 해월 스님(공주 원효사 주지)은 “마음을 기울여 <대예참문>을 지송하면서 하나하나 문장이 지닌 뜻과 의미를 전철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참선이나 다라니, 절 수행, 경전지송, 염불 등을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북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2	만능가 이 세상에 없을 당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영리 브뤼넬	솔바람
4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운주사
5	젊은 기차에 잘하는 법	창건	붓다의 마을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틀턴 초드론	미디어 월
8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9	담담하면 풀어라	법륜	정토
10	절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북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짤막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주옥같은 글 모음



나를 찾는 지혜, 풍경소리
풍경소리 지음 | 정병태 그림
풍경소리 펴냄 | 9000원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해 버려라.

만일 그들이 험담하면 그들에게 배워라.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아짤 차대선사>

지하철을 타거나 군부대를 방문해 보면 한 쪽 벽면의 게시판 속에 전각 그림과 함께 들어 있는 글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짤막한 잠언들은 일상에 지친 도시인이나 군 장병들의 발길을 한동안 잡아놓을 만

큼 가슴 속에 오랜 여운을 남긴다. 또한 일상에 매몰돼 있고 살았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어떤 이들은 있고 있던 병영의 좌우명을 여기서 재발견했다고도 하고 혹자는 생활의 지혜를 되찾았다고도 한다.

이 게시판 작업은 바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가 1999년부터 지하철과 철도역사를 비롯해 학교,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 공공장소 3000여 곳에 해 왔다. 이 내용을 묶은 것이 이번에 출간한 <나를 찾는 지혜, 풍경소리>이다. 이 책은 설타사가 출간한 <풍경소리>의 내용에 2권 이후에 게시된 새로운 내용 15편을 추가해 개정 증보판으로 출판된 것이며 2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인내” “마음” “처음 그릇” 등 오랫동안 머리맡에 두며 인생의 고비 때마다 들여다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주옥같은 글들이 가득하다.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은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지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250g 5,000원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카방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우전, 요사체,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든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현대칼라지붕공사

양촌 법계사 신중탱화(동)

양촌 법계사 상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용당 문성→회용당 상근→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을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통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원공 기념 피력합인!!!
바로보인 전통록 전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 (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가귀감 10월 서울 서울법회는 10월 7일(토) 열립니다.
10월부터 법회장소가 서당에서 도봉으로 변경됩니다.
* 서울선원 ☎ 02-3494-0122(매월 첫째 일요일)오전 11시
* 광주선원 ☎ 062-944-4088
* 선문염송/10월 21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매월 넷째 일요일)
* 반야심경/10월 28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